

신조(creed)

[신조 2 조]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그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면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 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방향 감각이 없는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만 경배하는 삶이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1.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므로 다른 존재에 의존하거나 방해받지 않는 절대자시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사는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 가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인생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따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요 8:29).

2.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계시며 어디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마 28:18-20).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도 없다(시 139:7-10).

3.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1) 존재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변치 않으시므로 성경에서 그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민 23:19).

2) 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사 55:9). 우리 머리로 풀리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르다와 나사로 이야기)

3) 권능

전능하시기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성경의 기적이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그가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성경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빌 4:6-7). (홍해 사건, 오병이어 사건)

4) 거룩하심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와 같은 분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죄를 짓지도, 죄를 용납할 수도 없으신 도덕적으로 바르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5) 공의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처럼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공의롭지 않고 악하게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우리의 위로와 감사의 조건이 된다.

6)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고통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주셨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